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0만 병상으로 확대

문재인 대통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겠다”

미용·성형 제외 비급여에 건강보험 적용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8월 9일 서울 성모병원에서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태년 국회 정책위의장,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명에 달하고,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있다”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

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5년간 30조 6000억원이 필요하다”면서 “그 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적자 21조원 중 절반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진과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 필요에 따른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환을 추진한다.

강화대책에 따르면 국민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이 대폭 확대된다. 수술 등으로 입원한 급성기 환자가 간병이 필요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

공하는 일반 병상을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353개 의료기관 2만3460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한다. 비용효과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비급여는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관리할 예정이다.

국민부담이 큰 비급여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진료를 2018년부터 완전 폐지하고, 상급병실도 201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 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관계를 재정립한다.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을 적정관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보장성 강화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진달체계 개편, 일차의료 강화,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의료의 질 개선 등도 병행해 추진한다.

주혜진 기자 hjoo@koreanurse.or.kr

질환 등의 임상적 증상, 발생 추이 및 진료결과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 질병·질환 등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 및 특성 △기후변화가 보건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및 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후보건영향평가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

간협,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환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공 위해 간호사 근무환경·처우 개선 강력 요청

대한간호협회는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8월 9일 발표했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힘써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면서 “특히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의 실질적 해소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대폭 확대’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인과 보호자 등의 병실 상주를 제한하고 전문 간호인력 등이 입원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사적 간병인 또는 가족이 담당했던 간병 부담을 해소하며, 간호사의 전문적 간호서비스를 통해 감염병과 낙상 예방 등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통해 한국의 병간호 문화를 개선하고 의료기관의 간호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온 국민이 깊이 체감하면서 국가 감염병 대책의 일환으로 확대 시행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간호협회는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관련해 각 의료기관들이 간호인력 수급, 시설 개선, 환자 및 보호자의 인식 부족 등으로 여러 진통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국민의 의료비와 간병 부담을 낮추는 것은 물론 한국 의료기관의 간호서비스 수준을 높임으로써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공을 위한 핵심은 간호서비스 질적 측면에 달려 있다”면서 “간호사 인력배치 수준에 따라 환자 사망률이 낮아지고, 재원일수가 감소하며, 의료사고가 감소한다는 국내외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충분한 간호사 인력을 통한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가운데 어려운 환경에서 헌신하고 있는 현장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바란다”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국민과 환자는 만족하지만 정작 간호사는 고통 받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간호사 인력을 충실히 배치하고 간호사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규숙 기자 kschung@

재할 수 있다.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위한 실태조사 항목도 신설됐다. 실태조사 내용은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질환 등의 발생 현황 및 임상정보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질환 등

기후보건영향평가제도 도입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기후보건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됐다.

기후보건영향평가제도의 세부사항을 담은 보건 의료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월 9일부터 시행됐다.

기후보건영향평가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는 것이다. 올해 2월 기후보건영향평가제도와 기후보건영향평가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한 실태조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보건 의료 기본법’이 개정된 바 있다.

시행령에서는 기후보건영향평가의 내용으로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의 유형 및 내용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 질병·

제38회 간호문학상 작품 공모

간호사신문에서 간호문화 발전과 간호사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공모해온 ‘간호문학상’이 38회를 맞이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4개 부문에 걸쳐 작품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모집 부문 (자유주제)	작품 분량	상금
단편소설	A4 7장 내외 (한글 12포인트 작성)	당선작 70만원 / 가작 50만원
수기	A4 4장 내외 (한글 12포인트 작성)	당선작 70만원 / 가작 50만원
수필	A4 2장 내외 (한글 12포인트 작성)	당선작 50만원 / 가작 30만원
시	3편 이상	당선작 50만원 / 가작 30만원

- 원고마감 : 2017년 10월 31일 (화)
- 수상작 발표 : 2017년 12월 중 간호사신문 지면
- 제출서류 : 작품, 참가신청서, 학생증 사본(간호대학생에 한함)
 - * 참가신청서는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koreanurse.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유의사항
 - * 부문별 중복접수 불가
 - * 기 수상자의 경우 수상 부문과 동일한 부문에 재응모 불가
- 보낼 곳 : (04615)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대한간호협회 간호사신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02)2260-2571로 문의 바람

대한간호협회 간호사신문

Nurselife 간호사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
www.Nurselife.or.kr
1566-3137

2017년 연중 지급 혜택

- 2017년 하반기부터 20,000 회원복지포인트 지급
- 등록회원 RNshop 총 구매액의 1% 적립포인트 지급

7월 지급 혜택

- [6.21~7.18] 간호현장 온라인 지침서 「간호실무」 오픈 이벤트 : 80명, 1,094,000원 상당 제공
- [7.1~7.31] RNcard 사용 회원 대상 닐스라이프포인트 지급 : 312명, 3,711,000원 상당 제공

8월 지급 예정 혜택

- [8.1~8.15] 간호현장 온라인 지침서 「간호실무」 오픈 이벤트
- [7.28~8.8] 영화 ‘청년경찰’ 주연배우 무대인사 및 무료관람
- [7.21~8.16] RNcard day 영화 ‘닥터타워’ 초대 이벤트
- [8.25~9.15] RNcard day 천원의 행복, 인기 모바일쿠폰 1,000원에 판매

전문간호사 1차 시험 312명 합격

2017년 제14회 전문간호사 자격 시험 1차 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12개 분야에서 396명이 지난 7월 16일 시험을 치렀으며, 이중 312명이 합격했다고 한국간호교육평가원(원장·양수)이 발표했다.

12개 분야는 가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산업, 아동, 응급, 임상, 정신, 중앙, 중환자, 호스피스 등이다.

합격여부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홈페이지(kabone.or.kr)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2차 시험이 실시된다. 2차 시험은 12개 분야 모두 8월 20일 서울 관악고등학교에서 치러진다. 자세한 내용은 간병원 홈페이지 참조.

최종 합격자는 9월 8일 발표될 예정이다.

정규숙 기자 kschung@

한국콜마가 만든 마스크팩

한국콜마 최고의 기술력을 담아 마스크팩이 탄생합니다.

마스크팩 전문회사 콜마스크로 시작합니다.

